
기숙사 합동 사생총회 회의록

일시 | 2022.07.18. 20:00 ~ 22:45

장소 | 지평선고등학교 문화체육관

주관 | 지평선고등학교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

1. 내 삶을 바꾸는 기숙사자치회

#1. 카카오톡 채널 운영

- 기숙사자치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각 기숙사 별 공지사항 전달 및 소통함 운영, 건의사항 수렴 등을 원활하게 실시하였습니다.

#2.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회칙 제정

-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회칙 제정 및 개정 (2회 개정), 기숙사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정을 통하여학생자치형 기숙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#3. 기타사항

- 방학 내 분기별 호실배정을 위한 사생운영위원회 회의 진행
-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회칙 제·개정을 위한 회의 진행
- 기숙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원활한 선거 진행
- 행사 또는 사생총회 시, 필요한 물품 또는 간식 구입
- 청소구역 배정을 위한 회의 진행

2. 내 삶이 바뀌는 여고기숙사

#1. 시설 교체 및 신설

- 빨랫대 및 빨랫바구니 교체 및 추가 구비
- 화장실 청소도구 (변기솔, 고무장갑) 교체 및 추가구비
- 전자시계 구비 (입구쪽 냉장고 위, 화장실 입구 위쪽)

#2. 캐비닛 교체

- 학생들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중 가장 컸던 좌식 캐비닛을입식 캐비닛으로 바꾸기 위한 의견 추진 및 예산을 보냈습니다.

#3. '화양연화' 행사 진행

- 영화제 (여고 5회, 남녀합동 1회) 행사 진행
- 남녀합동체육대회 1회 행사 진행

* 화양연화란,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뜻의 여고기숙사의 행사 *

#4. '기숙사 생활수칙' 제·개정

- 기숙사 생활수칙 제정 및 개정 (2회)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직접 생활수칙에 반영하고, 나아가 획일화 된 생활수칙을 통하여 보다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.

#5. 사생총회 진행

-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불편사항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인 여고기숙사 사생총회를 약 6회 실시하였습니다. (1회는 소방대피훈련 추가로 실시)

#6. 기숙사비상대책위원회 구성

- 사생장 사퇴로 인한 선거 2회 공고 후, 후보자 등록이 없어 기숙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생장 역할을 부족함 없이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#7. 테마별 기숙사 꾸미기

-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기숙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트리를 구매 및 장식하여 겨울방학 전까지 배치하였습니다.
- 또한, 호실별 산타 양말 제공 및사감실 앞 난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장식 데코를 진행하였습니다.

3. 내 삶이 바뀌는 남고기숙사

#1. 시설 수리 및 개선

- 기숙사 시설 개선 공약 이행으로 보다 나은 기숙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- 빨래방 바닥 개선, 호실별 게시판 설치, 대형게시판 설치, 슬리퍼 일부 교체, 각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시설 수리 및 개선 요청 등

#2. 문화가 있는 생일파티

- 문화가 있는 생일파티 6회 개최를 통해 기숙사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영화제, E-스포츠 대회, 체육대회, 기숙사 합동 체육대회 등

#3. 통합 알짬 운영

- 코로나19 이전의 일상, 통합알짬을 시행하였습니다.
- 통합알짬 시행으로 원활한 알짬 진행과 공지사항 전달 등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 소통하고, 보다 가까운 알짬을 운영하였습니다.

#4. '기숙사 생활수칙' 제·개정

- 기숙사 생활수칙 제정 및 개정 (2회)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직접 생활수칙에 반영하고, 나아가 획일화 된 생활수칙을 통하여 보다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.

#5. 사생총회 진행

- 서로의 의견을 듣는 기숙사 사생총회를 5회 실시하여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습니다. (1회는 소방대피훈련 추가로 실시)

#6. 사생장의 파업

-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숙사자치회를 위한 사생장의 파업 38일차를 기점으로 종료하였습니다!
- 학생 간 논의자리를 마련하여 '약속문'을 제정하였습니다.

02

‘기숙사 전자기기 사용 약속의 건’ 논의

박정인 : 전자기기로 소리를 발생시킬 경우, 이어폰을 착용하자.

임하은 : 사사시간에 전자기기를 호실원과 같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감선생님께서 전자기기는 학습의 용도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의

정용희 : 사유와 사색 시, 자기계발을 위해 활용하는 시간으로 하고,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호실원간 배려를 위해 자제하도록 함.

이서하 : 사유와 사색, 취침 모두 자율사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전자기기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제한되어있는 것처럼 전자기기도 그러한 맥락임.

임하은 : 전자기기는 학습의 용도가 아닌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나누어준것이라고 생각. 본인의 필요로 사용하는데 제한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

이서하 : 사유와 사색이 학습 및 자기계발로, 혼자 보는 것은 상관 없으나 여럿이 함께 보는 것이 문제가 됨.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나 기숙사 특성 상 방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.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방원이 함께 하는 것이 제한이 된다고 전달받음.

최민서 : 11시 이후 전자기기 사용 소음이 될 수 있음.

송윤서 : 이어폰 관련 약속을 정했으면 좋겠다.

서유성 : 침대 위에서 전자기기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

이현빈 : 같은 호실원이 취침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, 휴

대전화의 소음이나 불빛을 신경쓰면 좋겠다.

임하은 : 기숙사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?

김태현 : 인성부에서 학교의 특성이나 현재상황으로서는 올해 안에 설치하는 불가능하며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.

김은지 : 무선이어폰을 착용하는 학생들로 인해 큰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, 특히 고사기간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함. 타인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함.

이하경 : 알짬 시,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음. 중간중간 전자기기 사용의 경우, 아침청소에 추가했으면 함.

이서하 : 학교생활규정에 취침시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데 경계를 명확히 정하자.

육동연 : 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, 사용 가능하게 했으면 함.

[약속 관련 논의 01]

‘전자기기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이어폰을 착용하자’ (과반수 찬성)

: 호실원간의 동의를 구하면 이어폰을 착용하자 vs 필수로 착용하자

김성준 : 사유와 사색은 안되지만, 그 외에 시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됨.

김은지 : 필수로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함.

유지인 : 남/여 따로 약속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함.

: 기숙사별 약속 제정, 공통 약속 제정, 공통+기숙사별 약속 제정

이하경 : 사유와 사색은 공통이고, 그 외에는 기숙사별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함.

이서하 :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 제정하고, 세부적인 항목은 추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함.

오성화 : 민감한 부분이므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함.

임하은 : 서로 알지 못하는 각자의 규칙들을 굳이 들여보지 않고 따로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함.

이현빈 :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. 공동을 원칙으로 하되, 각 기숙사의 차이를 부칙으로 두자.

이하경 : 공동을 원칙으로 하고, 시행 중 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부칙을 두는 것으로 진행하자.

이서하 :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매 학기마다 약속을 새로 제정하려고 하였음. 공통의 약속을 바탕으로 세부 부칙을 정하면 좋겠다.

정주한 : 공통으로 정하는 것을 하면, 사소한 것에서 갈리는데 나눠서 빠르게 진행해으면 함.

육동연 : 공통적으로 크게 정해두고, 사소한것들은 따로 사생총회를 개최하여 정하도록 하자.

: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 이어서 논의 진행 후, 재투표 실시하도록 함.

김민석 : 공통/기숙사별 논의를 진행하였는데, 깔끔하게 다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
이하경 : 규정 위반 약속은 생길 수 없고, 엄청난 예외 사항이 아닐 경우, 약속의 세부사항을 거스르지 말자.

: 쉬는시간,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임시회의 진행

<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>

공통으로 정하고 추가로 기숙사 별 세부 부칙을 정하되, 단서조항을 달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.

: 호실원간의 동의를 구하면 이어폰을 착용하자 vs 필수로 착용하자 (이어서 논의)

김성준 : 사유와 사색은 안되지만, 그 외에 시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됨

김은지 : 필수로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함

이하경 :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호실원의 동의를 구하면, 착용해도 된다고 생각함.

이서하 : 약속은 생활규정을 벗어나면 안되지만, 약속은 예외가 생겨도 된다고 생각함. 단,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함. 각 기숙사의 특성 상, 예외사항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함.

이하경 : 예외사항에 대한 찬반을 해야 하나요?

최민서 : 진동이나 사소한 소음을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데, 소음에 진동도 포함됨을 상기!

김민석 : 기숙사에 있는 모든 시간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. 동의 구하는 것은 기숙사 별 약속으로 이관하자

이서하 : 최민서 학생의 의견에 덧붙여 진동이나 알림 & 전자기기 소음을 분리하자

육동연 : 취침, 알람, 사사 때만 안된다고 생각함.

김은지 : 기숙사에서 휴식을 하고싶는데 모두에게 힘들

이하경 : 방과후에 기숙사 자유롭게 활용하는데,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전자기기 소리를 내도 되는데, 공용공간에서만 착용하자.

최민서 : 진동, 알림 / 전자기기 소음 분리와 관련하여 질의

이서하 : 진동, 알림은 이어폰 착용 X, 전자기기는 이어폰 착용 O

김민석 : 소리의 피해는 여러 문제에 따라 판단되기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음. 따라서 이어폰 착용했으면 함.

이하경 : 상호 간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, 불편한 경우 사감선생님을 통해 전달하거나 사생운영회에서 논의하면 해결될 듯.

이현빈 :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진동/소음/기타 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야

함. 따라서, 의견을 둘로 나누자

1. 전자기기 사용 시, 타인에게 방해가 가지 않도록 밝기, 소음 등에 유의해 사용하자.
2.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어폰을 착용하자.

육동연 : 학교에서도 이어폰을 착용하는데 기숙사에서까지 사용하면 귀아픔/무선이어폰 충전 문제 등 발생

유지인 : 스피커 이용은 공동체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, 이어폰을 충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

김은지 : 공동체로 살면서 서로 배려하는 문제

1. ‘전자기기 사용 시, 타인에게 방해가 가지 않도록 밝기 및 소음 등에 유의해서 사용하자’ (만장일치)

2. ‘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어폰을 착용하자’ (만장일치)

[약속 관련 논의 02]

이어폰 착용과 관련한 세부 논의

육동연 : 취침, 알잠, 사사 때만 안된다고 생각함. (알잠은 원칙적으로 금지)

이하경 : 방과후에 기숙사 자유롭게 활용하는데,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전자기기 소리를 내도 되는데, 공용공간에서만 착용하자.

김민석 : 기숙사에 있는 모든 시간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. 동의 구하는 것은 기숙사 별 약속으로 이관하자.

: 방과후 이어폰 착용 반대 (43), 사유와 사색 및 취침 이어폰 착용 찬성 (과반수 이상)

[약속 관련 논의 03]

침대 위 전자기기 사용 관련 논의

- | |
|---|
| 10. 자율취침 이후에는 타 호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으며, 지정된 호실에 지정된 침대 또는 자리에서 1인만 취침한다. (지정된 침대 또는 자리는 취침의 용도로만 사용한다.) |
|---|

- 지평선고등학교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회칙 : 기숙사 생활수칙 中 제1장 제3조 ②

김태현 :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, 사생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의견 수렴에 참고하겠습니다.

김 훈 : 방과후에도 해당되는 것인가요?

김민석 : 남고기숙사 방바닥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.

[약속 관련 논의 04]

기숙사 생활수칙에 취침시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, 전자기기 사용 가능의 경계 정하기

김민석 : 기숙사 일정 상 취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?

9. 자율취침 이후 (23:00~)부터 절대취침 전 (~01:00)까지 학습 및 자기계발에만 한하여 깨어있을 수 있다. 단, 기숙사 내 전등은 모두 소등하며 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정숙된 분위기에서 스탠드를 사용한다. 스탠드 조도는 중간 정도의 밝기로 다른 학생들의 취침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.

- 지평선고등학교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회칙 : 기숙사 생활수칙 中 제1장 제3조 ②

김민석 : 기숙사 일정 상 취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?

이현빈 : 절대취침은 타인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취침까지 사용하자.

박정인 : 아침 06:40부터 자율기상인데, 알람이 06:40 이전에 안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자율취침 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하되, 절대취침 이후는 불가한 것으로 하자.

유지인 : 23:00 이후에는 학습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자기기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. 01:00 절대취침으로 정하자.

장경철 : 절대취침 공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다.

김민석 : 취침 시, mp3 또는 워치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.

김민석 : 진로에 따라 전자기기 사용에 다름. 학생들이 스스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함.

임하은 :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있었음. 특별한 이유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음.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함.

: 절대취침까지 전자기기 사용 가능 (과반수 이상)

03

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

- 최민서 : 세면대에 있는 휴지걸이를 수건걸이로 교체를 희망함.
김 훈 : 남고기숙사 입구 방충망 수리 요청의 건
황동규 : 발매트 교체의 건
한 율 : 기숙사 화장실 불일 보고 물을 내려주세요.
문준서 : 외부간식 및 샤워 관련의 건
김민석 : 안건에 대한 진행상황은 공유 중이니 보세요^^ 알짬도 잘 들어주세요 :)
김성준 : 청소 주기를 매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.
임하은 : 여고기숙사 걸레 교체의 건
김태영 : 여고기숙사 탈의실 내 휴지통 비치의 건
박형영 : 여고기숙사 샤워시간 개선의 건
임지원 : 호실에 수도관 막힘 문제 해결의 건

04

남고기숙사 사생총회

- 김 훈 : 각 호실별로 제습기 설치의 건, 신발장 물 새는 것 수리의 건 (천장 보수)
김민석 : 솔송관 좌변기 수리의 건
문준서 : 화장실 냄새나고 더러운 것, 물때 해결 요청
김은겸 : 간식 쓰레기 분리배출통에 버리지 말기
이세현 : 1~2호실 변기 2/3칸 수리 요청의 건
강무빈 : 2호실 샤워 호스 고장 수리의 건
김성준 : 공용휴지 비치의 건
이현빈 : 4호실 샤워부스 밸브 뻑뻑한 것 수리의 건
정동인 : 청소주기 화/목으로 변경하자
육동연 : 솔송관 화장실 호스 뜨거운거 수리의 건, 1호실 냄새 관련 문제
문준서 : 솔송관 샤워실 끝 부스 수압 관련의 건
이세현 : 2호실 2층침대 끝 쪽 나무조각 떨어짐 관련 해결건

강무빈 : 빨래방 불 수리요청 (수리요청함)

박건우 : 흠키파 제공 요청의 건

이현빈 : 빨래건조대 수리의 건, 4호실 홍지완 짐 해결의 건

이석훈 : 2호실 창문쪽 2층침대 흔들림 수리 요청의 건